

蒼空.(未定稿)

그 여름날,
熱情의 포푸라는,
오려는 蒼空의 푸른 젖가슴을
어루만지려
팔을 펼쳐, 흔들거렸다.
끝는 太陽그늘 좁다란地点에서.

×

天幕같은 하늘 밑에서,
떠들든 소낙이,
그리고 번개를.
쭈뼌 구름은 이끌고,
南方으로 도망하고,
높다라케 蒼空은. 한쪽으로
가지우에 퍼지고,
둥근달 과 기럭이를 불러왔다,

×

푸드른 어린마음이 理想에타고,
그의憧憬의날 가을에
凋落의눈물을 비웃다,

一九三五年 十月二十日、平壤서

창공

그 여름날
열정의 포플러는
오려는 창공의 푸른 젖가슴을
어루만지려
팔을 펼쳐, 흔들거렸다
끓는 태양 그늘 좁다란 지점에서

×

천막 같은 하늘 밑에서
떠들던 소나기
그리고 번개를
쭈뼌 구름은 이끌고
남방으로 도망하고
높다랗게 창공은 한 쪽으로
가지 위에 퍼지고
둥근달과 기럭이를 불러왔다.

×

푸드른 어린 마음이 이상에 타고
그의 동경의 날 가을에
조락의 눈물을 비웃다

1935. 10. 20. 평양서